

돈 안드는 정치

92년 대선자금 공개문제로 세상 이 시끄럽다. 92년 대선에 상상을 초월한 돈이 쓰여졌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원 선거를 치루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었다고 한다.

주권 포기하는 표팔기

'돈으로 얻은 공천',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 '돈으로 유지되는 선거'라고 이르러도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정치풍토다. 즉 돈이 없으면 절대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정말 고비용 정치구조이다. 그러므로 정정유착의 부패현상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금 여·야는 모두 '돈 안드는 정치'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과 같은 법개정 작업을 통해 외국 제도의 도입이나 기존 제도의 개·폐지를 모색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과 같이 '돈 안드는 선거' 또는 '돈 안드는 정치'는 법이나 제도만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정치인만 탓할 일도 아니다.

'돈 안드는 정치'의 주범은 돈에 표를 팔아 먹는 우리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답게 오

약 50%나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당들이 선거때마다 막대한 돈을 써 가며 당원을 늘리는 운동을 펼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는 일이다. 독일의 정당원들이 당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몇몇 중앙당 요원들을 제외하면 전혀 주인의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한국 중앙당 요원들도 사정에 따라 이 당, 저 당으로 당적을 자주 바꾸는 것을 보면 주인의식을 논하기는 커녕 부끄러운 정치현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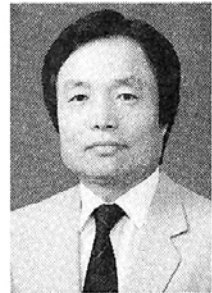
독일에는 '정당은 자금을 출처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것은 독일 정당의 지위에 관해 밝힌 독일 기본법 제21조이다. 이와같이 독일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정치헌금을 기부한 사람은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독일에서는 당에 수입된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회계 보고서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설명하게 하고, 이 회계 보고서는 경리심사원 또는 경리심사원의 감사원 감사에 의해 독립연방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독일연방의 관보에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재정상황을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치자금의 음성적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법은 이와 큰 대조를 보인다.

국민 의식개혁 급선무

이밖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해 여·야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세(勢)과시의 동원정치의 온산인 정당원들의 횡수를 없애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 방송연설회 또는 TV토론회를 활성화 하는 방안, 후보들의 축소와 공영계 도입, 지정기탁금 제도의 개선 같은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돈 안드는 정치'를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감을 하면서도 방법은 당리당략에 따라 각각씩이다. 정치는 우리의 사회생활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돈 안드는 정치'야말로 민주적인 정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요건이다. 하루 빨리 국민이 주인의식을 찾아 돈 몇푼에 주권을 파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것이 '돈 안드는 정치'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정용길 (동국대학교수·정치학)

“국민생명 태울 수 없다”

쓰레기소각장 대부분 기준치 초과...231배 넘는 곳도

‘죽음의 재’ 다이옥신

“쓰레기 감량 지혜 모을 때”

환경부가 5월 23일 발표한 '소각로 다이옥신 농도 조사결과' 선진국 규제수준인 m당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 이하로 측정된 곳은 서울 목동 신소각로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10개 소각로는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의정부 소각로의 경우 배출농도가 23.1ng이 검출돼 선진국 기준치보다 231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농도 수치를 발표하지 않아 의혹을 사고 있다.

망물의 증가, 여성복합의 주요원인인 자궁내막증의 급속한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2차 연소장치 등 소각로 시설을 보완하고 쓰레기 수분을 줄이는 등 연소온도를 높이는 관리를 강화하면 독극물의 발생을 상당히 억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백필터와 선택적 촉매환원장치를 갖춘 목동 신소각로만이 기준치에 미달했다.

강현욱 환경부장관은 “소각장별 다이옥신 배출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대책과 함께 16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배출농도가 높은 소각장 주변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9월과 올 2월 목동과 상계동 소각장의 다이옥신 검출과 관련, 주민 반대로 가동이 중단됐듯이 일부 소각장의 일시적 가동중단도 예상된다.



수도권쓰레기 시민연대 회원들이 2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초과배출 대책미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불교의 눈 “쓰레기 재활용 방법찾자”

환경운동연합 이태일 환경조사팀장은 “정부가 다이옥신 절감기술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정책을 소각위주로 전환하는 바람에 생긴 필연적인 결과”라며 “소각보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쓰레기를 가려내는 쪽으로 정부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지도자 즉 정부의 도리를

백성들이 근심을 없애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불과 같이 만민을 위해 근심을 없애주며, 물과 같이 사방을 유익하게 해주어야 한다.”(잡보장경) “국가와 안정을 기하고 장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원한다면, 백성들의 공포를 없애주어야 한다.”(금광명경)

지계

금주

파계

매달 10만원 적십자회비

국회 통일대비의원연구모임(회장 박중용의원)은 5월 27일 남북적십자회담 타결에 따라 앞으로 대북 구호물자 전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원하는 차원에서 회원들의 회비에서 매달 10만원씩의 성금을 공제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키로 했다.

‘사랑의 팀’ 꽃동네에 전달

호텔 리츠칼튼서울 직원들이 95년 개관 이래 손님들로부터 받은 팀 전액 7천 2백여만원을 5월 26일 총복음성 꽃동네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이 호텔엔 직원들에게 팀을 받지 못하도록 했으나 서비스에 고마움을 느낀 손님들이 직원들에게 팀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랑의 팀’ 상자를 만들어 이를 적립해왔다.

장애인에 PC-승용차 기증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을 소프트웨어 ‘사운드피아 97’을 삼성종합기술원과 공동개발, 5월 28일 CD를 2천 세트를 맹인복지연합회에 기증했다. 호칭그룹은 23일 장애인에게 면화열을 고취한다는 취지로 한국장애인정보화추진협의회에 PC 30대를 기증했다. 서울 송파구는 29일 관내 사회단체에서 기증받은 승용차 6대를

장애인에게 전달했다.

‘돈정치 추방’ 시민연대 결성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 60여개 시민단체들은 3일 돈정치추방을 위한 범시민 연대기구를 결성, 광범위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킬 것을 결의했다. 연대기구는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정당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청원키로 결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혈액형 관계없이 수혈가능

한국과학기술원 생물학과 변시명 정성태박사는 사람이나 동물의 적혈구 표면에 있는 혈액형 항원을 특수복합물질로 감싸 혈액형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해도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5월 26일 발표했다.

재활용품 모아 복합단기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도내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사회단체들은 5월 28일 남북적십자사가 합의한 지정기탁제를 활용해 ‘복합원도’ 동포돕기운동에 나섰다. 춘천시와 춘천교육청 등은 읍·면·동사무소와 학교별로 종이 병병 강등 등 재활용품을 이용해 자금을 만들어 대한적십자사에 지정기탁키로 했다.

3백억대 코카인밀수 적발

서울지검은 5월 27일 코카인 10kg을 밀수해 팔아온 혐의로 페루교포 등 7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페루교포 김모씨 등은 지난해 11월 코카인 10kg을 수출용 가공원목에 구멍을 파서 숨겨 들여왔다. 남미에서 직접 마약밀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식품에 독극물 협박편지

식품회사 제품에 독극물을 넣겠다는 협박편지가 잇따라 배달돼 경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월 28일과 5월 9일, 15일 등 3차례 협박편지가 배달됨에 따라 용의자인 40대 남자를 5월 26일 공개수배했다.

학교폭력 도박 때문에 자살

불량학생들의 구타와 협박을 견디지 못해 대구 흥중3년 권모양이 5월 26일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노름과 경마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50대 가장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혼수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신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교회신도가 숨지자 교회집사 김모씨가 26일 자살했다.

컴퓨터 이용 잇단 지폐위조

경찰은 5월 21일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 위조지폐를 제조, 사용한 회사원 최모씨를 적발했다. 경찰수사 결과 최씨는 스캐너로 173장의 위조지폐를 대량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캐너를 이용한 위조지폐는 5월중에만 206장이 발견됐다.

교수 임용 부조리 여전

갑사원 부장방직대책위가 5월 25일 발표한 ‘대학교수 임용부조리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161건의 교수 불공정임용 사례 중 총학장과 이사회의 인사권 전횡이 3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교육부에 ‘공정임용심사위’ 설치를 제안했다.

대학 2곳 수질오염 위반

충북제천 세명대와 단국대 의과대학(천안)이 오수정화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2배와 4배 이상 초과해 시설개선 명령과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3천3백89개 대학으로 오수정화단속을 벌여 이들 대학을 비롯 7백6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5월 28일 밝혔다.

구혼 이 동운 (33세,男) 공무원, 대학원졸 불교신도중 미혼여성을 원합니다. (23세-30세 사이 희망자) 연락처 (02) 584-0342 (19시 이후 전화)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추가 모집 요강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綿히 이어온 어산(법배)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실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公告文 今般 本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第二代 法主에 現 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維持 財團 理事長 金 慧 洽(信賢)스님이 推戴 되었음을 公告합니다. 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法主推戴委員會 財團法人 韓國佛敎法華宗 維持財團理事會 常務委員 鄭 坡 南 朴 惠 耕 咸 仁 成 金 妙 仁 任 慧 光 金 仙 潭 李 天 虎 尹 慧 正